

한국양록 당면과제와 예측가능한 미래의 양록업

우리의 양록산업은 지난 10년 동안 최악의 상황들을 맞이해 왔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전, 사슴에 관련된 모든 것이 개방됐습니다. 10년전 우리는

아무런 대비책도 없이 무방비 상태에서 녹용이, 정자가, 수정란이, 사슴고기가, 살아있는 생 사슴마저도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에서 수

백마리, 수천마리가 무제한 들어왔습니다. 이후 녹용 값과 사슴 값은 급락했고 양록업을 떠나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와중에서도 국내 대다수 양록인들은 정부의 도움 없이 우리의 자력만으로 생산, 판매, 홍보, 재정까지 담당해 오면서 양록산업을 성장시켜 왔습니다. 정책적인 도움 없이 오로지 자구노력만으로 현재 뉴질랜드 다음가

는 양록대국으로 성장시켜온 국내 양록산업을 이제는 국민으로부터, 정부로부터 인정받아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배소식/본회 부회장

국내 양록인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산업을 포기하지 않고 지켜왔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수입녹용을 막아야 한다는, 저질스러운 불법 외산녹용을 막아야 한다는 지상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만약 불법 외산녹용을 퇴출시키지 못하고 국내 양록산업을 괴멸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뉴질랜드나 캐나다 사슴산업의 식민화로 갈 수밖에 없습니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은 싱싱한 국산 생녹용이 포함된 보약을 10만원 남짓이면 먹을 수 있습니다. 그 원인



다. 현재 우리나라의 연간 녹용 수입액은 약 2천억원 정도입니다. 그러나 녹용 식민지화가 진행된다면 뉴질랜드, 캐나다 양륙산업의 녹용 가격 정책 결정에 따라 그 돈은 수천억, 수조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외국에서 애써 벌어들인 달러 수천, 수조원이 녹용수입으로 인해 빠져나가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입니다. 국가를 경영하는 지도자들은 이러한 시나리오가 현실로 닥치기 전에 국민 입장을 헤아리고 또 국가적 손실을 충분히 따져 양륙산업에 대한 적당한 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슴업이야 말로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축종보다 축산분야에서는 가장 경쟁력 있는 축산업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정서상 녹용을 먹으면서 마음으로 건강을 기원하며 생산업에 종사해왔고 피곤하고 지치면 보약 먹고 힘내서 생업에 종사해왔습니다. 녹용을 생산해서 외국에 수출해야 한다면 경쟁력이 없지만 물류비용도 지출되지 않는 국내 시장이 눈앞에 있다는 장점을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국토의 2/3가 산지이므로 이 산지를 잘만 활용하면 얼마든지 질 좋은 녹용을 저렴한 가격에 생산해낼 수 있습니다. 경쟁력 있는 사슴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육성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부의 정책 지원 요구와 더불어 우리 양륙인들이 헤쳐나가야 할 과제는 바로

수입녹용 퇴치 문제입니다. 수입녹용을 퇴치하기 위해서는 가격과 품질에서 그들보다 우위에 있어야 합니다.

먼저 품질입니다. 다른 농산물은 우리 국민들의 정서 속에 “국산이 좋다”라고 각인되어 있는데 유독 녹용은 뉴질랜드산, 러시아산 녹용이 좋다고 인식되어 있습니다. 원인은 바로 뉴질랜드 등이 비디오테이프를 제작, “그림 같은 초원에서 사슴을 키우기 때문에 좋다”라며 한 의원이나 한약방을 무차별 공략한 것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저가의 수입녹용을 써야 이윤이 많이 남는 한의원, 한약방들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도 부분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림 같은 초원에서 방목을 하니까 우수하다”라는 그들의 논리에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소수의 인원이 엄청난 땅에서 수백, 수천마리를 관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아니 가능하더라도 개체관리는 어렵습니다. 개체관리가 어렵다보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개체관리 부실은 사슴의 영양상태 부실로 이어집니다. 영양상태가 부실하면 외부로부터 침입하는 병원균으로부터 싸울 수 있는 항체기능이 떨어집니다. 각종 자연적인 기생충, 질병 등에 감염될 수 있는 확률이 우리 안에서 가두어 키우는 것보다 몇 배가 더 큽니다. 감염 자체를 모르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도 허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집약사육을 실시하기 때문에 관리가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품질 좋은 녹용의 기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영양실조와 질병에 노출된 사슴에게서 채취한 녹용이겠습니까? 품질이 좋은 녹용이란 건강한 사슴에서 채취한 녹용일 것입니다. 뉴질랜드나 캐나다 양육인들은 그림 같은 환경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좋다고 하지만 그러면 왜 캐나다 여기저기에서 해마다 CWD(사슴만성소모성질병)가 발생하는 것입니까. 유럽의 광활한 초원에서 크는 소에서 광우병이 왜 발생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홍보해야 합니다. 비록 가두어 키우지만 뉴질랜드나 캐나다에서 급여할 수 없는 각종 질 좋은 건초, 조사료를 먹여서 키운다는 사실을 주지시키고 고품질 소량 생산 쪽으로 진행된다면 품질은 자신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가격입니다. 알아본 바에 따르면 불법 유통되는 수입녹용 가격과 국산 녹용의 도매가격은 차이는 있지만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는 아닙니다. 생산비를 획기적으로 낮추는 방법을 연구해 수입녹용과의 차이를 줄여나간다면 수입녹용은 품질과 가격 측면에서 절대 국산 녹용에 범접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슴산업 전망에 대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슴산업은 분명 전망이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사슴은 어느 가족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신비스런 녹용을 약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여기에 완벽한 건강식품인 사슴고기를 개발한다면 21세기 떠오르는 가족 중 하나임이 분명합니다. 미래학자들은 30년 뒤 지구상에 급격한 식량난이 도래할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평균수명 연장으로 실버층이 증가, 폭발적인 인구증가가 올 것이라 말합니다. 30년 뒤에는 전세계 인구가 90억명을 넘어설 것이라고, 또 인구증가는 식량난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미래학자들은 예견합니다. 또한 이 인구들을 먹여 살리기 위한 무분별한 개발과 축산정책은 물 기근 현상을 불러올 것이라 합니다.

30년 뒤 우리가 먹어야 할 육고기는 어디서 충당을 하더라도 현재의 200% 이상은 늘어난다고 미래학자들은 말합니다. 30년 뒤에는 단순히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산물 체제를 벗어나서 환경호르몬 등 맹독성 잔류치 등을 걱정하는 시대가 도래할 것입니다.

이러한 예견들을 전제로 축산정책을 생각해 봅니다. 만일 소, 돼지, 닭으로 식량정책을 진행해 나간다면 30년 뒤에는 소, 돼지, 닭을 두배 이상 키워내야 합니다. 돼지나 닭은 사람이 먹는 식량으로 키워내야 합니다. 돼지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량의 두배를 급여해야 원하는



고기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식량난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정책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들 축종들을 키워내며 배출되는 축산폐수를 정화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본과 시설이 소요될 것입니다. 기존의 축산정책은 지구 오염을 가속화시키는 정책일 뿐입니다. 그것에 대한 대안이 바로 사슴입니다. 사슴을 키워 팔만 자르는 용도에서 고기를 병행하는 사슴사육 정책을 펼쳐나가면 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사슴은 유사시 양질의 조사료만 먹어도 얼마든지 키워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사슴 똥은 냄새가 없고 소량이기 때문에 환경친화적 축산입니다. 또한 사슴은 질병에 강합니다. 별다른 약을 투여하지 않고도 건강하게 키워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소, 돼지 등은 많은 약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내성을 생각한다면 앞으로 30년 후에는 맹독성 고강도 항생제를 써야 고기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슴은 어느 식품보다 청정한 식품, 안전한 식품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사슴고기는 지방이 없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질 고기를 다량 섭취하다보면 혈액 속에 지방질 농도가 높아집니다. 지방질 농도가 높아지면 혈압이 올라가고 성인병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저지방, 고단백질, 알칼리성 식품인 사슴고기가 바로 그 대안이 될 것입니다.

예방의학적 측면에서도 우리는 사슴고기를 개발해야 합니다. 오늘날 인간의 평균 수명은 예전에 비해 많이 길어졌습니다. 거기에 가장 공헌도가 높은 것은 치료약이 아니고 예방의학입니다. 질병이 발생할 요지를 차단하는 예방의학이 오늘날 인간수명을 길게 만든 일등공신입니다. 식생활 문화도 이제는 예방의학적 차원에서 비만에 좋고 성인병에 좋은 사슴고기를 개발해서 국민에게 보급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볼 때도 이득이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사슴고기를 대중에게 전파하는 방법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차원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식당을 계획하고 있는 도시사람들이 사슴고기 전문점을 열 수 있도록 정부가 용자를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식당을 계획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돈에 여력이 있어 사업을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살고 있는 집 등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업을 시작합니다. 이를 정부에서 사슴고기 전문점 창업을 조건으로 년 2-3% 정도의 소액 이자만 받고 대출을 해주는 것입니다. 전국 5대 도시에 한군데씩만 지원을 한다면 사슴고기를 대중화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차원에서는 위험부담없이 이자까지 받으며 지원을 해줘서 좋고, 창업에 나서는 사람들도 저리에 사

업을 시작할 수 있어 부담이 없을 것입니다. 물론 사슴고기 전문점이 창업되면 인근 지역의 지회들이 발벗고 나서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고기 납품에서 홍보까지 적극적인 도움을 펼쳐줘야 할 것입니다. 이는 사슴고기 전문점을 창업한 업주를 위한 일인 동시에 우리 자신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여건이 된다면 위와 같은 사항을 정부에 건의해 볼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슴산업의 미래는 밝습니다. 아니 모든 여건이 사슴산업쪽으로 기울어져 가고 있습니다.

식생활문화는 선진국형으로 변하고 있어 고기를 먹는데도 기름기 적은 식단 곧 사슴고기로 바뀌어 갈 것입니다. 경기의 호전과 생활수준 향상으로 보약을 치료보다는 예방의학적으로 복용하게 될 것입니다. 두꺼워지는 실버층은 양육인의 주고객들을 점점 더 많이 양산하고 있습니다. 주 5일 근무제 도입으로 레저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환경 변화가 우리에게 유리한 쪽으로 변한다고 가만히 때만 기다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보다 빠른 성공을 위해 사슴산업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를 하루빨리 이끌어내야 할 것입니다. 사슴산업이야말로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산업, 애국산업이라는 인식을 심어주

어야 합니다. 식량난에 일조하여 인류를 구원하는 인류구원산업, 환경축산, 건강산업이라는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었을 때 사슴산업은 보다 빠른 성공을 기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부사항을 마지막으로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양육협회에 새로운 집행부가 출범을 했습니다. 그러나 임원 중 누가, 아니면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여 협회에 등을 돌리면 그것은 곧 분열을 의미합니다. 분열은 힘을 약화시키는 한 요인입니다. 힘이 약해지면 정부정책에서 밀리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정책에서 소외되고 소외되는 것입니다. 정부정책에서 소외되면 어떠한 산업이든 경쟁력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경쟁력을 잃게 되면 품질과 가격에서 소비자에게 다가설 수 없게 됩니다. 사례 깊지 못한 나의 행동 하나가 양육업의 퇴보라는 메아리가 되어 각자 농장에 돌아올 뿐입니다. 주어진 사람들의 임무는 잠시입니다. “나중에 도와주지. 나중에 참여하지”라는 생각은 그 기간만큼 양육산업을 퇴보시키는 일입니다. 양육협회 회원의 도리를 지키면서 비판할 것은 강하게 비판하되, 비판보다 더 좋은 대안을 제시해야 협회가, 사슴산업이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국양육**